

소통하는 자리로도 내비뒤 콘서트를 활용했다. 휴식과 재미, 또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까지 주어지자 이를 찾는 이들은 늘어만 갔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스님은 대중들이 가까이 있는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지쳐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 안에 행복이 있는 거죠. 가령 ‘이미 휴가를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휴가를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라고 말하면 모두들 표정이 밝아져요. 고통이 역사사지로 보면 아직은 견딜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종단 백년대계 세우는데 일조 다짐

대중들과 소통하는 스님의 활동에 주목한 것이 바로 조계종 자정교과제신결사추진본부였다.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건 추진본부에서는 스님의 이런 모습에 큰 기대를 걸었다.

스님은 2011년부터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을 맡아 사회 곳곳의 현안에 몸으로 부딪혔다. 특히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러 스님들과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데 주력했다. 이후 스님은 2013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을 맡게 된다.

“바쁘다고 말을 하면 능력없다고 생각될 듯 하지만 참 바쁜 자리입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구나 느껴요. 바깥에서 종단을 바라볼 때는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게 됐지만 막상 들어오니 여러 기획을 현실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불교계를 옥죄는 규제법령 해제 등 많은 과제들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은 최근 종단에서는 연등회가 무사히 회향하게 돼 무거운 짐을 덜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연등회는 외국인의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종단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큰 아픔인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죠. 연등회는 축제가기도 하지만 나라의 위기에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할 때면 큰 슬픔을 위로하고 힘을 모으는 자리로 열리기도 했기에 추모의 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불자들의 위로와 추모의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이어 불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생명가치를 되살리는데 앞장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생명 등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게 아닌가 싶어요. 돈이나 명예에 치우치다 보니, 생명을 경시하고 몰라보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불자들이 이번 계기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포교 일선에서 매진 할 것

스님은 종단 소임을 마친 후에는 문화포교 일선으로 돌아가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고 전개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에서 하는 ‘문화포교’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사찰에 오면 내 곁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잠시나마 세상이를 잊고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화포교’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불자들을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불자들과 불교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절을 한번에 찾아와도 ‘아, 참 좋구나. 잘왔구나’ 하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스님은 여러 고찰에서 문화포교를 하며 먼저 젊은 사



극무락사 왕귀환 생환

일감 스님은 ... 원용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이후 1990년 해인사에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 선원, 고불총림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멕시코 보리사 주지, 자성교과제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총무원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특히 스님은 금산사 수련원장으로 있으며 특색있는 템플스테이를 구성해 사찰별로 템플스테이가 차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ilho@hyunbul.com

람들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불교의 힘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부터 여러 문화포교 사업을 진행하며 각 사찰이 사찰하면 으레 떠오르는 어르신 일색에서 탈피해 젊은 사람들이 크게 늘어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문화포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무자인 스님과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만도 해도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요. 이런 문제는 종단에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또 문화포교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도 육성해야 겠지요.”

스님은 불교계에서 사찰음악회, 사찰음식 강좌 등 기존에 문화포교 영역이 많기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교연극과 인문학 강좌 등 새롭게 개발되는 분야도 많다고 소개했다.

“결국 불교의 품으로 오는 사람들은 뭉뚱하니 아니라

음의 휴식을 원하기에 사실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백년 전 스님들은 당시에 어떻게 포교했을까요. 복잡하게 아니라 단순한 것에 해법이 있는 듯 합니다.”

스님은 끝으로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한류를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류가 무르익은 지금 이제는 불교한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양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그 저변이 더욱 넓어질 겁니다. 21세기는 ‘문화포교’의 시대입니다. 문화와 포교활동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어요. 보다 많은 사람, 여러 곳으로 시야를 돌려 사찰로, 불교의 품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교회 짓는 스님

5사단 군중참모로 있을 때의 일이다. 부임해 종교 시설을 살펴보니 올라가다 만 건물 한 채가 눈에 띄었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다가 예산이 모자라 6개월째 방치돼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선 담당 군중목사를 불러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다.

“서울의 모 교회가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취소가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예전 처럼 외부에 나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군목이 중위 이기에 그런 건 아닐까. 중령인 내가 가면 달라지지 않을까.’

서울에서 사랑을 한 아름 사서 사단 목사를 대동하고 그 교회로 찾아갔다. 그들에게 누구를 만나야 교회를 마저 다 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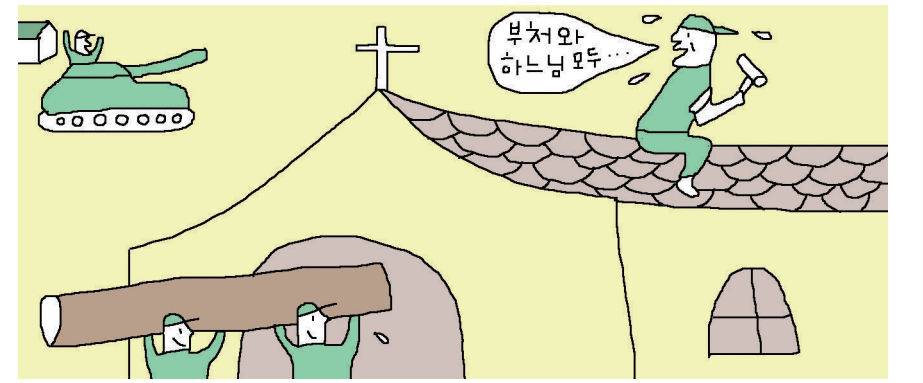
었기 때문이다.

사단으로 돌아와 교회 간부들이 온다는 날에 맞춰 군악대 등을 동원해 화려하게 이들을 맞았다. 당시 교회가 없어 예배를 보지 못한 기독교 장병들도 함께 나와 이들을 환영했다. 결국 이들은 사단 교회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나는 공병들을 동원해 직접 교회 신축 공사도 감독했다. 공사 내내 군목이나 기독교 장병들이 스님인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짓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

교회가 완성되자 그동안 부대 밖 민간 교회로 나가야 했던 장병들은 부대 안에 훌륭한 교회가 생기자 환호했다.

교회 간부들은 스님인 내가 교회를 지어주어 고맙다면서도 한마디를 놓치지 않



그림·박구원

수 있는나고 묻자 그들은 원로 목사인 한 경직 목사를 찾아가라고 했다.

사단목사와 함께 남한산성 종택의 한경직 목사의 거처로 걸음을 옮겼다. 한 목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니 스님인 내가 조를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역사는 끝없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부대 교회 신축공사는 중단된 것입니까. 돈 때문에 그 역사가 중단돼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허허, 스님이 아니십니까. 어찌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신분은 스님이지만 사단 군중참모로 교회를 원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지어줄 직분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음을 내시면 사단 측에서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한 목사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 자리에서 교회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재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에서는 현장방문 이후 결정하겠다고 답해왔다. 산간벽지에 큰 교회를 짓는 것 보다 도시에 교회를 짓는 것이 전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 기왕 교회까지 지어주었으니 개종하면 더 잘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개정해서 큰 교회 목사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일도 아니었다.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다 부처님 손바닥 안이고, 하나님 품 안인데 어디서 논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군 내에 군중업무를 책임질 때는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찰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를 떠나 장병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올바른 기독교인은 올바른 불교인 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자랑 스님 (前 군중교구장·용인 반야선원 주지)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깨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게·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사,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목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사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목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중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중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립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보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hphia5@daum.net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출판기념회 및 법보시 안내**

저자거리 수행전법도량인 열린선원의 개원 9돌과 열린선원장 무상법현스님의 수상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의 출판기념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날 짜 : 2558(2014)년 5월 31일(토)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장 소 : 열린선원 (☎02-386-4755)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05호

▶내 용 : 개원 9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법회 (설법, 축사, 축가, 인사, 공양자리)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수행도, 전법도, 저자거리에서

법현 스님

※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을 법보시 하기 위해 50권 이상 주문하실 분은 법현스님(010-5245-03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프로방스, 열린선원 정연위원 일동 합장